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추억나들이 힐링시간

영광 불갑사 · 백수해안도로 · 칠산타워 등 방문

테마여행으로 관내 장애인 사회적응력 도모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광일)이 풍성한 가을을 맞아 지난 27일 추억나들이 힐링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들이는 강진탐진로타리클럽(회장 김재영)의 기부금과 평소 여러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

출발 전 환송행사에서는 이승욱 군수와 김재영 탐진로타리클럽회장, 오선옥 복지관운영위원장, 정광일 관장등과 참여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2백만 원을 전달하는 기막새이 열려 흐뭇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승욱 군수는 환송사를 통해 “매년 우리 군 장애인분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는 탐진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짧은 하루

지만 즐겁고 안전한 여행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을 출발한 일행은 첫 여행지인 영광 불갑사에 도착하여 복지관 종사자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거나 손에 손을 잡고 관람을 하였다. 이후 범성포로 이동 영광의 대표 향토음식인 굴비정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오후에는 경치 좋은 길로 유명한 백수해안도로와 서해안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칠산타워를 차례로 관람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정광일 관장은 “평소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추억나들이를 추진하고 있



다”며, “탐진로타리클럽처럼 후원해주는 단체가 있어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강진읍에서 추억나들이에 참여한

한상식(83세)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야외 나들이는 꺼려지기가 일쑤인데, 모처럼 선선한 날씨에 바깥 구경을 하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청각 장애인입니다, 문자주세요” SKT, ‘손누리랑’ 출시

SK텔레콤이 청각 장애인들의 음성 통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손누리랑’ (손으로 세상을 그린다)을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한 청각장애인 학교 선생님은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가 걱정과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의 사연을 SK텔레콤에 보냈다.

SK텔레콤은 사연을 접하고 국립서울농학교와 전국 청각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청취, 개발에 착수해 통화 연결을 안내 서비스 ‘손누리랑’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신자가 ‘손누리랑’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신자는 통화연결음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고객님의 휴대전화입니다. 문자로 연락주세요”라는 음성 안내를 받는다.

오늘부터 서비스 실시

국내 청각장애인 약 27만명

국내 청각장애인은 약 27만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음성통화 대신 문자를 주고 받거나 영상통화에서 수화로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택배나 은행, 관공서 등 제3자가 보내는 고지성·안내성 전화를 받지 못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승욱 국립서울농학교장은 “손누리랑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고객들이 전화가 걸려올 때 겪는 고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기운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손누리랑은 청각장애인들이 이동전화 사용자 불편 사항을 귀담아 듣고 이를 서비스로 상응화한 사례”라며 “고객이 느끼는 불편 사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진정성 있는 고객 가치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축전 성료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축전' 실내조정 경기가 열리고 있다.

제3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축전이 지난달 30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특수교육 대상자 600여명은 이날 육상경기, 탁구 등 7개 종목을 치렀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내년에 열리는 제14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

전한다. 시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테핑, 쉐프볼, 셔플보드 등 11개 종목을 선정해 ‘뉴

스포츠 체원존’을 설치·운영했다.

체육축전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평생체육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물론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설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웰니스 보성에서 행복충전하세요”

보성군은 지난달 26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보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윤동호) 주관으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170명과 함께 자매결연 도시와 함께하는 ‘웰니스 행복충전여행’을 진행했다.

지난 해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행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무장애 숲속 데크로드 함께 걷기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로 참여자 간 정보교류 및 교우관계 확장을 위해 기획되었다.

자매결연 도시인 광주 동구·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60명,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9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여하고,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영희) 회원들과 장애인활동보조사 등 28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이날만큼은 장애인



을 돌보는 가족들도 힐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통기타 연주와 국악가요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기념식과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가벼운 레크레이션과 함께 무장애 숲속 데크로드 걷기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제암산휴양림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웰니스 행복충전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란다.”며 환영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